



series: 住

SERIES MAGAZINE ISSUE 15
SPRING/SUMMER 2014

삶의 자리

건축이라는 대화

유주현

집의 시작은 설계가 아닐까? 아니, 둘째 단계쯤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집을 짓는 사람의 다양한 취향과 희망 사항이 집 짓기의 시작이라면, 이를 고려해 집을 설계하는 것이 건축가의 몫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온 것을 실현해주는 셈이다. 건축설계사 유주현은 그렇게 건축주의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은 꿈을 집으로 지어서 보여준다. 평생 아파트에서 살던 어느 노부부는 고희가 넘어 언젠가 꼭 살아보고 싶었던 정원이 딸린 주택을 짓기 위해 그를 찾았고, 또 어느 젊은 조각가는 서울의 좁은 땅에 평생 살 집을 짓고자 그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건축가, 참 멋진 직업이다. 그런가?(웃음) 나는 건축설계사인 동시에 공간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사실 예전에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축설계의 경계가 모호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세세한 요구 사항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건물의 안과 밖을 책임지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건축을 설계하는 동시에 공간 디자인도 하고 있다.

인터뷰를 앞두고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을 때 '감리'라는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들려달라. 〈시리즈〉 매거진 인터뷰니까, 옷에 비유해보겠다.(웃음) 옷은 디자인에 따라 옷감의 종류는 물론 주머니의 위치, 단추 종류 등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한 벌의 옷을 만들려면 옷이 디자인에 맞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처음 의도한 대로 단추가 제대로 달렸는지, 주머니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체크해야 한다. 감리도 마찬가지다. 설계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감독해야 의도한 집을 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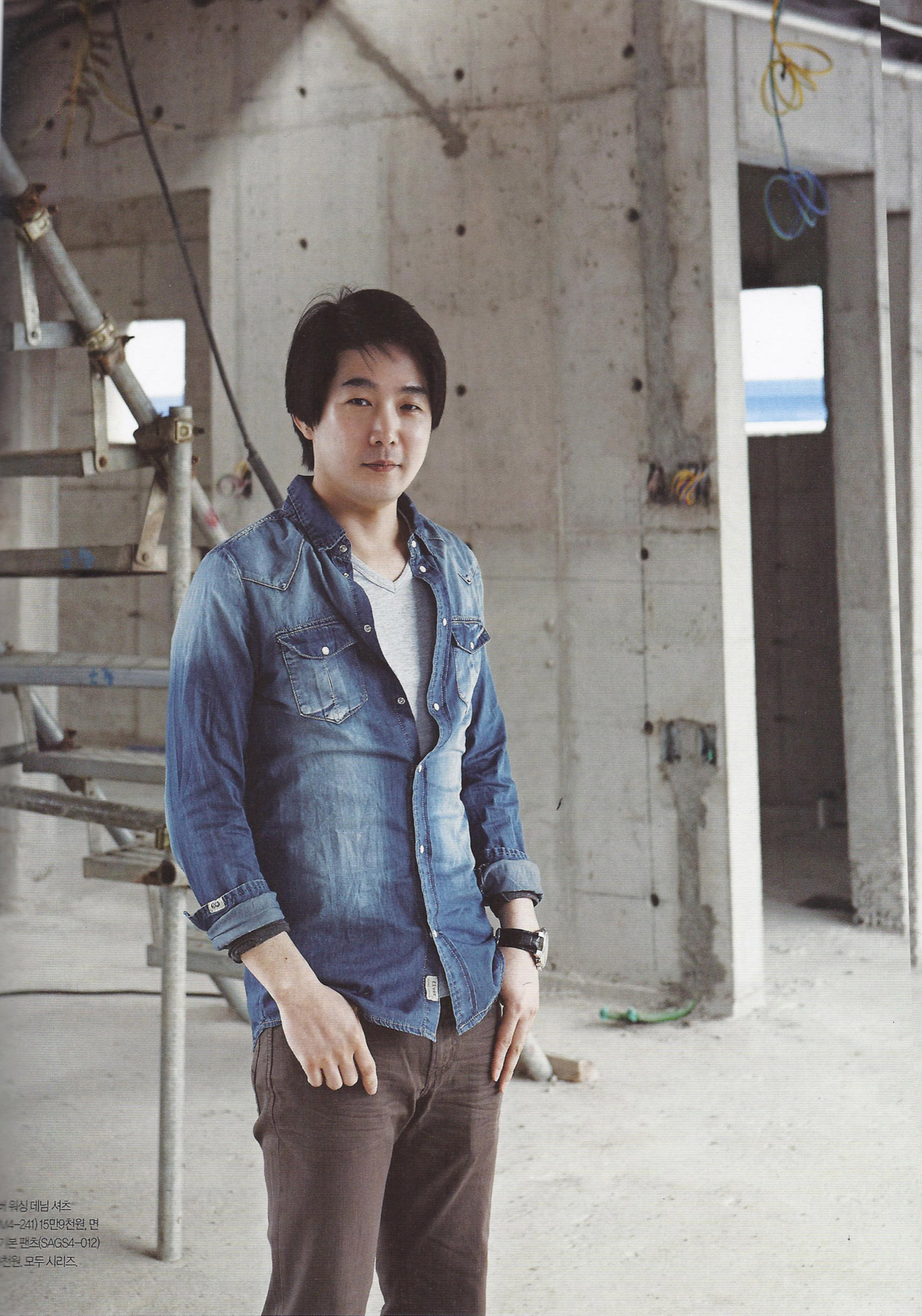
건축가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인가? 가장 중요한 건 건축주의 의도가 얼마나 잘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건축주의 취향과 성격, 그리고 집에 담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잘 드러난 집이 좋은 집이다. 말하자면 건축이란 언어로 건축주와 대화한 결과물이 집이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모습인가? 아직 내 집을 짓지는 못했다. 우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정원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뭐랄까, 치유? 아니다. 요즘은 힐링이란 단어가 워낙 많이 쓰이니까 오히려 반감이 생기더라. 자기 성찰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집이란 곳은 먹고 자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쉴 수 있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직접 집을 지어 살아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을 떠올리면 관리가 힘들고 불편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어쩌면 선입견이라기보다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급하게 지은 주택은 난방비도 많이 들고 내구성도 떨어진다. 다행히 이제는 건축 설비 비용을 아끼는 데 매이기보다 지속 가능한 주택을 짓는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집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다. 맞다. 나는 지금 '성찰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집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건축 비용을 형편에 맞게 줄인다 해도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니 말이다.

언젠가 이루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나? 나는 집 짓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라 그런 것 같다. 언젠가는 꼭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만들고 싶다.



워킹 데님 셔츠
(M4-241) 15만9천원, 면
트 팬츠(SAGS4-012)
천원 모두 시리즈.